

# 서울特別市支部

## “虎視牛歩의 姿勢로 正道를 걷자”

李春相支部長 人事

하루의 첫계획은 아침에 있으며 한 달의 첫계획은 초하룻날에 있는 바와 같이 한해의 첫계획을 正初라고 합니다.

먼저 새해 새아침에 여러분에게 新年人事를 드리며 소원성취 하시길 祈願합니다.

우리 建築士協會에서는 1985年은 運營의 活性化를 기하며 따라서 “建築士”誌 편찬위원회에서는 1985年 1월 호부터 各 支部巡礼欄을 신설하여 주시어 “서울지부를 먼저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지부의 선결문제는 支部長 就任所感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부의 운영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어떤 일을 선결문제로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보람이 있고 행복한 建築士社會를 설계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支部運營方針은 “正道”를 걷는 자세로 할 것입니다. 사회가 때로는 혼란에 빠지는 것과 같이 우리 협회운영에도 이와 같은 경우에 부딪힐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建築士 되시는 분들이 建築主의 횡포에 휘말리어 불이익처분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좀 더 말은바 직분에 충실하여 正道를 걸어갑니다. 그리하여 부당한 建築主는 과감히 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正道입니다. 그럼으로써 支部運營에 正道를 걷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支部는 여러 회원님들의 보호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선의의 회원에 피해를 주시는 분들에게까지 보호하여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지부는 1,000여회원에 육박하여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으신

회원부터 年老하신 선배님 및 업무규모에 따라 대, 중, 소의 사무실형태, 건축사업무의 장단기 경험을 가지신 분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지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성의를 가지고 작은 작품이라도 정성껏 하시며 建築士業을 천직으로 하시는 분들에 기준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사무실의 휴폐업을 다반사로 하시거나, 눈앞의 이윤만을 추구하시어 사무실의 이전이 빈번한 곳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셔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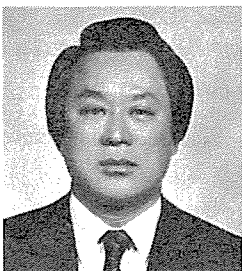
협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會誌 및 기타 정보로서(예; 유인물 등) 업무에 참고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협회에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면에 정보가 늦어지시어 불편을 가져오므로 앞으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체의 弘報가 부족하며 만족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수시로 변화는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서울지부 자체에서 機關紙를 발행하여 운영하려는 계획도 세워봅시다. 여기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므로 여러분의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으며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보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합시다.

기타 여러가지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갈 것이며 “意慾의 過剩은 失意”가 크다고 합니다. 능력을 바로 알고 그 능력에 맞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마침 “소”(牛)의 해로서 본인의 任期初年度이며 1986년은 “호랑이”(虎) 해로서 任期末年度입니다.

옛어른의 말씀과 같이 “虎視牛歩”로서 호랑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앞을 살피고 소의 발걸음처럼 쉬지않고 힘차게 걸어서 천리길 만리길을 갈 수 있도록 支部發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李春相서울支部長

1. 서울支部의 概況

1963년 12월 16일 건축사에 대한 자격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규정한 建築士法이 제정 공포되고 제 1회 건축사자격시험이 65년 4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어 이에 합격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지방장관에게 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를 會員으로 하는 法人이 大韓建築士協會(本部)가 설립됨에 따라 65년 11월 7일 부터 12월 14일 까지 각 지방支部도 각기 발족 되었는바 당 서울支部의 경우는 발기인 모임을 거쳐 65년 11월 29일 이명환 會員의 95명이 참석하여 서울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支部長 1人, 幹事9人, 감사 2인)설출과 동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본부로부터 승인받아 주사무소를 서대문구 서소문동 16에 지부 사무국(직원 5명)을 두고 회무를 담당 처리하게 한바 있었고, 지부 설립후 초창기 약 5년간의 지부의 활동 및 회원을 위한 사업추진은 주로 회원에 대한 통신수단의 제고 및 난립되어 있던 건축계의 정비, 윤리문제를 정립 하는데 주력을 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지부는 회원의 증가 및 사회 발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70년대 초반 부터는 괄목할만한 사업이 활발히 태동하게 되었는 바 會館建立委員會 발족 및 予置制度의 시행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또한 회원증가와 병행하여 업무량역 시늘어나 사무기구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를 맞게되어 회원업무 편의도모를 위한 分所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데 70년 7월 영등포분소(남부분소)를 시발로 하여 75년 8월 부터는 동부, 서부, 북부, 중부분소를 증설하고 設計圖書 登錄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간의 회원 친목도모는 물론 주변 비위사무소를 견제하는등 회원 권익신장 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회원업무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회원 권익뿐

만 아니라 대외적인 지위향상을 높이는데 노력을 강구하였다.

支部 운영을 위한 財源으로 正회원 月定會員·入會費 방법에서 實的會費를 추가 납부하는 제도를 통해 성장 발전의 시기를 맞게 되는데 지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나 77년부터 협회 예산제도가 지부 독립채산제에서 본부 통합 예산제도로 변경되어 지

부 운영은 예산을 비롯한 기구의 축소로 이때부터 제한된 입장에서 제반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제도하에서 서울지부는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성장을 늦추지 않기위해 非予算等 자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실천하였는데 그간의 역대임원의 노고가 특히 컸다 하겠다.

〈별표 1〉

○서울지부년도말 회원및 예산현황

년 도	회 원 수	예 산 액
1956년	188명	
1966 "	276 "	
1967 "	342 "	7,335,669
1968 "	415 "	16,400,712
1969 "	443 "	20,121,200
1970 "	483 "	22,102,000
1971 "	537 "	31,405,729
1972 "	535 "	35,432,000
1973 "	573 "	41,390,976
1974 "	628 "	58,080,853
1975 "	763 "	77,466,777
1976 "	735 "	134,191,898
1977 "	764 "	103,931,840
1978 "	763 "	97,119,053
1979 "	789 "	76,211,173
1980 "	788 "	81,016,155
1981 "	815 "	91,259,710
1982 "	835 "	104,956,980
1983 "	892 "	178,409,353
1984 "	964 "	187,383,940

〈별표 2〉

회관매입위치	평 수		매 입 액	제 원	본부와 투자비율
	대 지	건 물			
종로·서린동 89-1	61평	200.97평	42,431,248	회원건립기금	서울지부:본부 63:37

〈별표 3〉

분 소 명	설치일자	관 할 구 역	관할회원수	직원수	주요업무	비 고
중부분소	77. 3. 26	종로·중구	276	3	1. 도서 등록 2. 회비 징수	
동부분소	75. 8. 1	성동·강남·천호	110	4	"	
서부분소	75. 8. 1	서대문·마포·용산	94	4	"	
남부분소	70. 7. 20	영등포·관악·양서	179	5	"	
북부분소	75. 8. 1	동대문·성북·도봉	86	4	"	

특히 회원 소득증대 사업을 제고하기 위한 83년부터 84년까지의 設計報酬 정상화 방안에 따른 여러가지 방안 강구는 특이할만하며 이를 위해 서울支部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사항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 2. 지부의 성장과정

앞서 기술한 支部의 개황을 토대로 좀더 세부적으로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별표 1>과 같다.

가. 회원 및 예산의 성장

나. 회관건립

71년부터 회관건립을 위해 매년 기금을 조성 74년 4월에 처음으로 종로구 서린동의 회관을 아래와 같이 매입한 바 있었음.

상기 회관위치가 서울시 재개발로 인해 현재의 강남구 서초동으로 이전하고 회관을 본부에서 주관 신축중에 있다.

다. 분소운영 실적

서울지부 분소설치 운영은 70년7월부터 78년5월 1일 건설부 制度改善 지시에 의거 폐쇄시 까지 별표 3 과 같이 운영된 바 있음.

라. 설계비 예치제 실시

설계비 덤핑방지책의 일환으로 71년 10월 정기총회 결의에 의거 회원 자율적인 설계비 예치제도를 마련, 설계도서 등록시 확인, 회원 소득증대 사업의 일익을 담당케 한 바 있다. 74년도까지는 서울지부에서 이제도의 업무를 주관하여 오다가 75년에 이르러 여러가지 제도적 문제점 등을 보완키 위해 별도 운영체인 복지회를 설립 현재의 서울건축사복지회로 전환 회원의 각종 복지사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동 예치하고 있습니다.

• 복지사업실적

75년도 복지회설립후 정착화된 설계비 예치제도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정기예금이자발생분으로 인한, 연금배당사업)으로 81년 3월 전회원(무실적자제외)에게 1인당 3백37만 8천원

을 지급하는 5개년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81년도 부터는 이를 계속함과 동시에 설계비의 1%의 복지회비를 추가시켜 사업의 폭을 넓히고 있는 중에 있다.

마. 건축행정 상담실 운영

지역사회 발전 및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77년 7월 1일 부터 지부내에 건축행정 상담실을 설치, 회원 및 일반 시민의 건축행정에 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부의 사회적 인식도를 높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상담실적은 아래표와 같다.

년 도 별	상 담 실 적
1977년	673건
1978 "	1,720 "
1979 "	1,183 "
1980 "	965 "
1981 "	829 "
1982 "	820 "
1983 "	929 "
1984 "	820
계	7,937 "

바. 기타 주요사업 추진實績.

기타 지부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아래 내용과 같이 수립 추진하여 지부성장을 가속화 시킨 바 있다.

- ① 일간지를 통한 홍보문 게재
- ② 각종 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
- ③ 해외시찰단 파견 및 국제교류추진
- ④ 설계도서검토제(83년)실시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
- ⑤ 의료보험 가입 추진
- ⑥ 예규집 발간등 기타 참고책자 발간 보급.
- ⑦ 보조원관리를 위한 근무기록 카드제(80) 실시
- ⑧ 간담회(각종)를 통한 업무증진.

사. 회원의 친목증진

지부 창설후 특히 회원의 친목증진을 위하여 각종 대회등을 마련, 회원 상호 친목강화는 물론 대화의 광장을 마련키 위해 초창기에는 주로 야유회를 통한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회원수를 감안 행사방법을 다양화하여 골프, 낚시, 바둑, 축구 등 취미별로 개최 많은 회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시 중에 있다.

아. 지역社会 發展의 기여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개하는 각종 운동 및 행사등의 참여는 물론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통한 활동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 바 있다.

① 각종 운동 참여실적.

- (1) 새마을 운동
- (2) 서정쇄신 추진운동
- (3) 물자절약 운동
- (4) 자연보호 운동
- (5) 사회정화 운동

② 국군장병 위문실적

- (1) 모범장병 초청 위문공연  
(76년 : 류관순 기념관, 참석 : 약 1,000여명 참석)
- (2) 자매부대방문 (4 회) : 105 전투경찰대
- (3) 5272부대위문 (77년12월)
- (4) 방위성금 전달

③ 수재민 돕기

- (1) 수재민 돕기를 위한 의연금 전달
- (2) 84년 9월 수재로 인한 서울지역 침수가옥에 대한 구조안전도 조사를 위한 전회원의 무료 자원봉사를 위한 전회원의 무료 자원봉사
- ④ 기타 불우이웃돕기 및 농촌일손 돕기 참여

## 4. 본부에 대한 건의사항

지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당지부는 제도적인 면에서 본부에 아래사항을 건의 및 당면 미해결의 문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서울지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의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가. 連合會制度로서 支部운영의 自治制

나. 설계도서 신고의 건축발생지를 회원소속지부에서 실시

다. 신입 회원의 협회 홍보에 대한 세미나